

그 사람 지금은

(18) 박상구 前 삼양타이어 회장 <상>

■ 전라도 역사이야기

-남약도청 터

“80년 DJ 1천만원 줬다고 회사까지 뺏겼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1년 후배입니다. 그 분을 모신 권노갑씨도 목포상고 출신이고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인 1980년 2~3월께였어요. 권씨가 찾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말해 1천만원을 지원했지요. 그런데 운이 없어서 말씨가 나갔어요. 그래서 회사(삼양타이어)를 넘겼지요. 하지만 금호 측은 내 회사가 필요했고 나도 아쉬웠지만 25억원의 돈을 받았으니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은 어느 집이든 가족간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재 부산상호저축은행 명예회장인 박상구 전 삼양타이어 회장을 지난 9일 서울 논현동의 (주)금창스틸 사무실에서 만났다. 금창스틸은 아들인 연준씨가 경영하는 회사다.

박 명예회장은 금호그룹 설립자인 고 박인천 회장의 장조 카이자 현 박삼구 회장의 사촌형이다. 그가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난 1981년 삼양타이어의 금호 재인수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박 명예회장은 고 박인천 회장과 함께 광주택시, 광주여객, 금호고속 등으로 이어지는 금호그룹의 역사를 일궈나가다가 금호타이어에서 사장과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던 그는 1980년 그룹 재산 분배 과정에서 ‘금호’에서 분리 독립



1974년 10월 삼양타이어 직원 합동결혼식장에서 박상구(오른쪽) 명예회장인 사촌동생인 박성용(2005년 작고) 금호그룹 전 회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국은 버스운행이 주사업이 됐다. 때문에 1948년에는 ‘광주여객’으로 사명을 바꿨다. 이때 박 명예회장은 지배인으로 실무 총 지휘했다.

삼양타이어가 창립된 것은 지난 1960년. 광주여객이 성장 가도를 구가했지만 타이어 공급시장이 열악했던 때문에 타이어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처럼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금호그룹은 타이어 구입난을 해결하기 위해 삼양타이어를 창립했으며 1978년에는 금호타이어로 사명(社名)을 바꿨다.

1981년 8월 25억원에 모든 지분을 금호그룹에 넘긴 박 명예회장은 부산·대전·광주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를 차례로

당시 군부 압력 등 각종 소문에 대해 부정도 시인도 않고 “있을수 있는일”

했다. 그러나 그는 81년 8월 금호로부터 25억원을 받고 삼양타이어 지분을 모두 넘기고 말았다. 이를 놓고 당시에는 ‘김대중씨에게 정치자금 준 데 대한 보복을 받았다’, ‘금호그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등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기세등등했던 신군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은 눈치였지만 ‘그때 누구나 힘들었다’는 말과 ‘말썽’이란 단어로 대신했다.

그리고 기자가 ‘당시 삼양타이어의 독립과 금호의 재인수는 가족간 재산 정리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며 결국 그룹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이라 소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으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당시 삼양타이어 관련 사진을 모두 불태워버렸다는 말에서는 당시 금호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럼에도 그는 동생인 박삼구 현 금호그룹 회장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표시했다. 박 명예회장은 “삼구 회장은 가장 능력있는 사람이어서 (그룹을) 잘 (경영)할 것이다. 고 박인천 회장을 대신할만한 인물이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금호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지적을 했을 때도 “2~3년만 지켜봐라 좋아질 것이다. 삼구를 믿는다. 금호하고 호반이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광주사람들이 금호가 광주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되게 칭찬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박(삼구) 회장을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명예회장은 또 정식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동

- 약력
▲1923년 나주 다시 출생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광주여객 전무
▲삼양타이어 사장·회장
▲부산상호저축은행 사장·회장
▲정산문화복지재단 이사장

생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써달라”는 말을 몇번씩이나 했다.

목포상고를 1942년 12월에 졸업한 박 명예회장은 호남 갑부로 유명했던 고 현준호씨가 회장으로 있던 전남산업에 취업했다.

가마니 등 짚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1945년 초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던 그는 당시 징병을 피해 간도로 갔고 해방 이후에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셋째 숙부인 금호그룹 고 박인천 회장과 함께 1946년 4월 ‘광주택시’를 설립하면서 사업에 뛰어 들었다. 자본이 없던 그들은 강진의 갑부인 유재씨의 출자를 받았다. 택시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은 6월에는 3대로 늘어날 정도로 성장 가도를 걸었다.

또 1947년에는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고 결

“회사 매각 후 사업 악화로 빛 늘어 남은 회사도 처분해 직원 월급 보상”

인수했다. 또 경기도 안성에 ‘도가산업’을 차려 함께 그만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금호그룹에서 받은 돈이 25억원이어서 나 혼자 살기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 하나만을 믿고 사표를 낸 직원이 8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을 위문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작한 회사의 경영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6년여가 지난 1987년에는 빛이 1천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박 회장은 결국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부산 상호신용금고만 제외하고 회사를 모두 매각했다. 부산상호신용금고의 경우는 원래 회사가 부실해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삼양타이어 재직시부터 함께 해온 김양·김민영·강상호씨와 장남인 연호씨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때 손에 남은 돈이 8억원이었다.

<히면에서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906년까지 나주 관할지역 음성서 90리... 화살촉 산출지

21세기가 열리면서 신도시·시가지가 유행이다. 수도권 주변 위성도시부터 행정 복합도시, 국제무역도시, 혁신도시가 나타나고 있다. 남도에서도 광주 상무신도시와 남약 새 도청 터가 마련됐다.

1896년 전라남도(1목 32군)의 출발과 더불어 광주읍성 안에 새 치소(治所)가 정해진다. 482평의 양식 목조건물인 전남도청사는 1930년 광산동 13번지에 김순하(1901~1966)의 설계에 따라 붉은색 벽돌구조 2층으로 회의실과 함께 새로 지어진다.

광복 직후 백색 건물이 되고, 본관은 1975년 3층으로 증축되었다. 도청회의실은 1981년 광주유형문화재 제6호가 되고, 설계도는 한국인이 설계한 최초 지방 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제24호로 지정되었다.

본관도 2002년 등록문화재 제16호로 올라 아시아문화전당에 남겨 되었다. 2005년 10월 4일 전남도청은 무안군 삼향면 남약리(南岳里)로 이사를 시작했다.

문명정부가 도청이전을 발표하고, 1993년 말 전남발전연구원이 당시 풍수학자의 명당론을 바탕으로 적지로 꼽았고, 국민정부가 가시화시켜 이전이 이뤄졌다.

남약리는 노령의 끝자락에 솟은 오룡산(225m)에 안겨 있으며, 영산강 하구가 내려다보인다. 노루

목과 암소머리로 내린 좌청룡과 초당산으로 긴 우백호와 함께 큰대섬(大竹島)이 안산을 이루 일명 ‘오룡쟁주(五龍爭珠)’ 형국으로 풀이하고 있다. 새 도청터는 본디 나주 땅이었다. 고려 때 임성(任城)·군산(群山)·극포(極浦)부곡이 엮였다가 조선시대 성신여대에 소장 중인 대동여지도 중 영산강 하구 삼향 일대 삼부곡을 ‘삼향(三鄉)’이라 칭하면서 1906년까지 나주목의 월경처였다.



소속읍에서 멀리 떨어져 타 군현에 들어 있는 땅을 월경처라 한다. 삼향은 나주읍성에서 90리 거리인 무안 땅에 있는 나주 관할 지역으로 화살촉의 산출지였다. 18세기 당시 700여호 2천여명이 살고 있어 나주목 관내에서 음성산 다음으로 많았다. 깃벌(干渴地)을 개간하여 농토를 일궈 원낙(남매기)을 비롯하여 회룡(구래·천마·남산·죽도), 신흥(응동), 오룡, 안동(안골, 밭재, 마하, 부흥, 해창)마을이 들어섰다.

1910년대 해주오씨의 땅이 3할이 넘었고, 김해 김·밀양 박·연안 차·안동 권씨 순으로 땅을 소유했다. 1930년대에는 조정 김성규와 아들 우진·철진 소유가 1/3 이상 이었고, 현준호와 차성술도 4만여평을 갖고 있었다.

7만여 평에 1천700여원을 들여 23층으로 지은 신전남도청터에는 김철진(1905~1971)의 1천평 대지에 99칸 집과 1941년 소작인들이 세운 빗물이 서 있었다.

의회동 동편 남약호수는 1935년 축조한 저수지로 4만2천톤의 관개용수를 담았다. 도청주소가 된 1000번지는 687번지에 살았던 박대진 소유 밭 645평터다.

/김경수(새향도문헌진흥위원장)

광주CBS 일본선교여행.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Includes details about the trip,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icipants.